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까?
 -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는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1. 지도층과 함께 무너지는 사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식과 물, 곧 생존에 필요한 기초 자원들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초점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향합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심으로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던져지는 상황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정치, 군사,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거론되는데, 이들은 ‘복술자’, ‘요술자’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 지도층들의 기반을 흔들어 송두리채 뽑아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사회를 지탱하던 지도층의 붕괴가 결국 사회 전체의 무질서와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년들과 아이들, 즉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권력을 잡고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말 그대로 각자도생의 상황에 던져지고 맙니다. 백성이 서로를 학대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참극이 일어나고 말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겉옷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붙들어 그나마 당신은 형편이 나은 것 같으니 제발 지도자가 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사회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사회에 찾아오는 비극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언어와 행위에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능욕하면서도 고개를 뺏뺏이 들고 다니면서 그러한 일을 씬 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참고. 갈 6:7).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사회 지도층의 붕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대 혼란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고관과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땀돌질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표현이 일상적일 만큼 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그들의 팔을 비틀어 고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해 일어나, 서서 심판을 선언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 것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를 알현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참고. 마 8:10).

한 사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척도는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무서운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얼굴의 표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가 드러납니다.